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

1960~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시영(국방부)

이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 즉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 / 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말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위협 인식과 전략적 선택”(북한대학원대학교, 2015)의 제3장과 제4장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 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군사적 모험주의, 전망이론, 위협인식, 위험감수전략

1. 문제제기

남북관계 역사상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화해와 대결이라는 가장ダイナミック한 역학관계를 보여줬으며, 1970년대 초 남북 간의 짧은 데탕트를 종식시키고, 다시금 대립의 역사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심에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있었다.¹⁾ 냉전의 시기에도 남북대화는 진행되었고, 탈냉전의 남북화해협력시기에도 강도와 유형은 달랐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냉전과 탈냉전의 이념적 세계질서의 구도를 넘어

1) Christian F. Ostermann, James F. Person and Charles Kraus, *The Carter Chille: US-ROK- 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 ~1979*(Briefing Books)(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3); James F. Person, *After Detente: The Korean Peninsula 1973 ~1976*(Briefing Book)(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북한 대외전략의 기반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계속되어왔다. 북한의 도발을 통한 1960~1970년대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정학적 이유와 그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연구도 있었으며,²⁾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기원과 배경에 대한 통사적 접근법을 통해 군사외교(Military-Diplomatic)의 수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³⁾ 또한,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당제관계의 ‘연루’우려와 국가관계의 ‘방기’우려라는 북중관계의 특수성 속에 내장된 불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연루와 방기라는 동맹의 딜레마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한 연구도 있었다.⁴⁾ 좀 더 공격적으로 북한의 모험주

-
- 2)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 북한, 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제113호(2001); 홍석률, “1976년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과 한반도 위기,”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2005);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동북아 테탕트와 한국 통일문제: 미, 중간의 한국문제에 대한 비밀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42호(2001);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홍석률, “위기속의 정전협정: 푸에블로 사건과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여름호(2003).
- 3) Narushige Michshida, “Calculated Adventurism: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0”(Ph. 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2003);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4) 1960년대 말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문화혁명과 연계된 북중동맹의 악화 속에서 중국과의 국가관계속에서의 ‘방기’ 우려 속에서 일종의 ‘계산된 모험주의’를 통해 중국의 당제관계 속에서의 ‘연루’ 의혹을 자극하여 바다까지 추락했던 북중관계를 재정상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970년대는 미중테탕트 속에서 한반도 안보관리체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 간의 일정한 기대구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도 김일성의 호전성은 지속되었으며, 김일성은 다시금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계산된 모험성’ 속에서 전략적 침묵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 연구: 양국 동맹의 기원과 역동적 전개과정”(고려대학교

의란 대미항쟁을 통해 조국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던 베트남 방식에 고무된 김일성이 중국의 마오를 대신해 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의 리더로 부상하고자 했던 야망의 결과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었다.⁵⁾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목적과 동기를 지나치게 외부적 요소에서 찾고 있는데, 대미·대남위주의 외교정책 혹은 중국과의 동맹관계 복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가 대외적 요인과 함께 대내적 요인과 동기, 내부적 동학요인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상황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면서 ‘비합리적’, ‘예측불가능’이라는 당연하지만 한계가 노정된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정책결정자 중심의 인식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정리하면,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선택의 해답은 실제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그것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내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연구자들과 차별화된 학문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결국 북한은 어떠한 대내외적 위협인식을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할 것인지 혹은 자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개할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다

박사학위논문, 2008);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5)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WIHP Working Paper 44*(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4), pp. 1~40.

체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망이론을 통해 이론적 분석들을 정리하고 보완할 것이다. 둘째,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로 연결되는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접근법으로 모험주의 발생의 상황적 맥락과 그 속에서의 위협인식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정치 상황,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1차 자료와 북한문헌 연구에 집중했다. 한편으로 북한문헌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해외 소재의 북한자료와 북한 주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사관이 보고했던 주요한 외교문서들을 참고했다.⁶⁾

2.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이해

1) 군사적 모험주의의 개관

군사적 모험주의(Military Adventurism)를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혼

6) 다행히 이러한 외교문서들이 최근에는 구소련과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에서 발굴되었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국제냉전사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를 통해 상당 부분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중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북한국제문서프로젝트(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에서 발간하는 문서는 분석대상으로서 매우 큰 가치가 있었으며,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히 말하는 군사적 도발과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군사적 모험주의를 정의하자면, “객관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성공을 바라고 군사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향” 또는 “정치 및 국제관계에서 과격하고 무책임한 군사적 정책, 방법, 행위(rash or irresponsible policies, methods or actions)”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반항적이고 도전적인(defiance and disregard)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⁷⁾ 그렇다면, 단순한 ‘도발(挑發, provocation)’이 하나의 ‘주의(主義, -ism)’로 분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⁸⁾ 첫째로, 단순한 도발이 제한전(limited war) 또는 전면전(total war)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추가적인 도발, 그리고 그에 대한 역대응을 통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로는,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과 그로인한 국가내부의 혼란정도이다. 이는 도발로 인해서 비상사태 및 동원령선포, 소집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들의 여부도 포함된다. 셋째로, 도발로 인한 대내외적인 정세의 악화와 그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정도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여론과 동향까지도 포함되며, 대내적으로는 정권유지 및 사회내부의 혼란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도발에

7) 이 정의는 ‘모험주의’라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통해 필자가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개념을 재정의한 부분이다.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adventurism>(검색일: 2014.11.24).

8) 미치시타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군사외교전역(military-diplomatic campaigns)의 개념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고 분석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일반적으로 모험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Narushige Michshida, “Calculated Adventurism: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0”(Ph. 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2003), pp. 12~19.

대한 군사적인 대응의 정도를 말하는데, 대응규모와 강도, 전투준비태세 수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다섯째로는, 지속성으로 이는 도발자체의 지속성과 도발에 대한 대응의 지속성 등 도발이 완전히 해결되는 지속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주요한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선정하면 1960년대에는 청와대 기습사건(1986.1.21)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1.23), 1970년대에는 서해 NLL 도발사건(1973년~현재)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 등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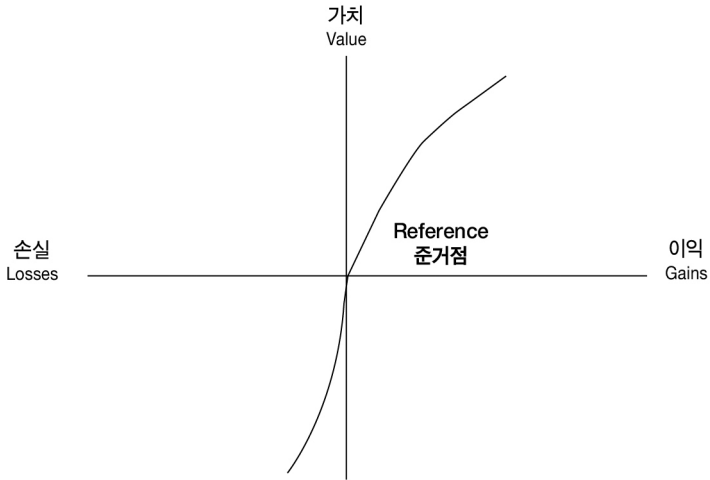
2) 이론적 접근

(1) 전망이론

위험(risk)을 감수하고 결과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인식론적 접근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주목했던 이론은 전망이론이다. 전망이론은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비합리성(irrational)’, ‘예측불가능(unpredictable)’성이라는 단면적 분석을 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⁹⁾ 인간선택이 어떠한 경우에 위험을 회피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모험적인 혹은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전망이론은 ‘영역효과(domain

9) 전망이론에 대해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정책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2006);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2007); Ki-Tae Park, “Analyzing North Korea’s Decision-Making Proces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the Rational Choice and Cognitive Models” (Ph. D. dissertation, The Pardee Rand Graduate School, 2010); 조재욱 외,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국방연구』, 제54권 3호(2011).

<그림 1> 전망이론의 효용곡선



자료: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1979), p. 279.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두 선택에서 안전한 것을 선호하고, 손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손실 중에서 더 모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영역(gain domain)에서는 보다 안전한 선택을, 손실영역(loss domain)에서는 보다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위험(risk)이란 무엇인가? 위험은 '중요한 가치(important value)를 잃거나, 원하는 목적(desired goal)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것 같은 일종의 두려움(fear)'으로,¹¹⁾ 결국 '위험은 정책(actions)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serious

10) Jack Levy,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etical Applications and Analytical Problems,"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1992), p. 285.

11) Rose McDermott,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losses)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정책결정자에게 비슷한 위험한(risky) 선택들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책결정자의 상대적인 위험정도의 인식과 어느 정책이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맥락에서 전략적 선택은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험감수경향은 다른 가능한 선택보다 예상되는 결과가 벗어날 가능성과 정도가 높을 때 취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적 경향은 예상되는 결과보다 벗어날 가능성과 정도가 낮을 때 선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³⁾

다시 말하면, 전망이론은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의 이익과 손실(gains and losses)의 관점에서 고려하여,¹⁴⁾ 이익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risk-averse)을, 손실영역에서는 위험을 감수(risk-taking)하는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위험감수의 결과가 재앙적인 손실(too catastrophic losses)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회피적인 경향¹⁵⁾을 보이며, '선호의 역전(reference reversal)'이 일어난다.¹⁶⁾ 북한이 어떤

Foreign Policy(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p. 1.

- 12) Jeffrey W. Taliaferro, "Realism, Power Shifts, and Major War," *Security Studies*, Vol. 10, No. 4(2001), p. 162.
- 13) Jihwan Hwang,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2005), p. 11.
- 14) Kahneman and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1979), pp. 277, 286; Hwang,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p. 14.
- 15) Amos Tversky and Daniel Kahneman,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4(1986), p. 258.
- 16)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 빨리 예상될 경우, 손실영역에서도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재앙적 손

상황인식 속에서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며 한반도에서의 극도의 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또 다른 상황인식을 통해서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면서 위험회피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설명하려는 적실성에 주목했다.

(2) 위협인식과 전략선택의 메커니즘

북한이 사행했던 모험주의적 군사도발은 어떠한 전략선택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것인가? 전망이론은 국가가 경험하는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차이가 외교정책결정과 정상의 위험감수(risk-taking)와 선택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¹⁷⁾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과 상대국의 행동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의 과정이라는 논리구조 속에서 고민해보면, 북한은 최근 손실을 보았거나 향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북한은 그 상황을 준거점으로 손실의 영역으로 규정하게 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은 외부로부터의 국제적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내부

실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Kahneman and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pp. 285~286; Hwang,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p. 17;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의 분석," 83~85쪽.

- 17)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자산을 과대평가(over-evaluate)하여 매우 중요시하며 가능하면 손실을 회피하려고(loss-averse)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자기 자신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 선택결정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된 준거점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게 된다. 이익이 발생할 때와 손실이 발생할 때의 선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Jack S. Levy,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etical Applications and Analytic Problems," p. 11.

<표 1>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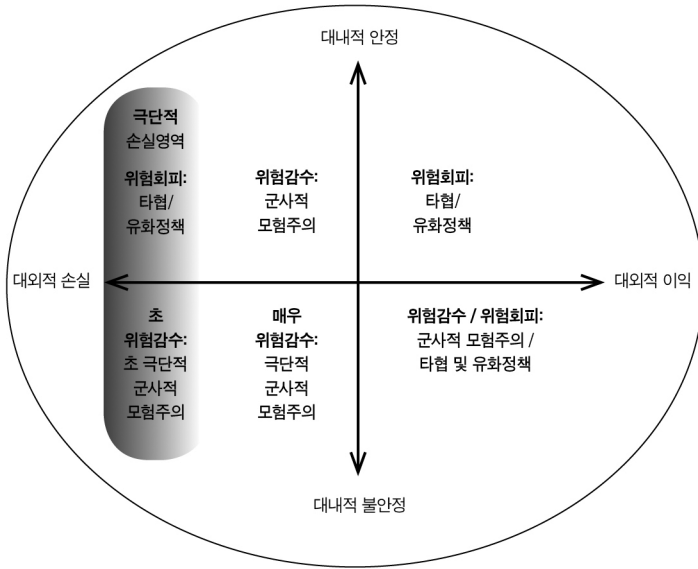
구분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	손실영역	극단적 손실영역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협회파: 타협 / 유화정책	위험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회파: 타협 / 유화정책
	불안정적	위험감수 또는 위협회파: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 / 유화정책	매우 위험감수: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초 위험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자료: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2006), 86쪽을 참고하여 제작성.

적인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법도 전망이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북한은 그들의 대외적 전략선택이 국내적 정치상황에 보다 우호적이고 정권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게 되고, 반면에 국내적 정치상황에서 국제적 정치상황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부정적 결과요소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김일성에게도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전략적 선택의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정치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¹⁸⁾ 앞서 논의되었던 전망이론의 주요한 논리를 기반으로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18)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국내적 정치상황의 불안정성과 연결될 경우, 국내정치적 부담 때문에 군사적 모험주의의 강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정권의 지도자들이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국내적인 위기를 대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논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James D. Fearon,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1994), pp. 586 ~ 587.

<그림 2> 전망이론을 통해 본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분석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의 대외적 정치상황에 대한 위협 인식이 ‘손실영역 또는 이익영역에 대한 위치규정’과 북한의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정도’와 연계되면서, ‘위험감수적인 군사적 모험주의’ 아니면, ‘위험회피적인 타협 및 유화정책’을 선택한다는 ‘위협 인식과 전략선택의 메커니즘’이 완성된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3. 196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1) 북한의 대외적 상황: 손실영역내로의 진입

(1) 대미 투쟁의식 확대와 피포위 위협인식

1960년대 김일성의 대외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중에 하나는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피포위 위협인식의 확대와 대미 제국주의 투쟁의식 고취를 통한 혁명전략사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⁹⁾ 김일성은 이러한 위협인식을 국제 사회주의 연대를 통한 대미투쟁의식으로 연결시키는데,²⁰⁾ 베트남 지원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행동의 지지부진과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²¹⁾ 북한은 베트남전 발발 이후 미국을 중심으

19)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378~385쪽.

20) 위의 책, 386~388쪽; 북한의 부수상 박성철과 헤인츠(Heintz) 북한주재 동독대사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월남에서의 미국의 고전을 언급하며, “미국을 너무 무시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미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Memorandum On Audience for Comrades Heintze and Breitenstein with Comrade Pak Seongcheol, Member of the Politburo,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12 May 1967, 5.20 p.m.MfAA, C 1088/70. obtain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and translated for NKIDP by Karen Riechert, GDR Embassy in the DPRK Pyongyang, 13 May 1967 in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8~1969: A Critical Oral History*(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pp. 149~151.

21) 김일성은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확대하고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아시아의 전체적인 맥락(베트남전 수행)에서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Letter from GDR Embassy in the DPRK to State Secretary Hegen, 12 December 1966, State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II, 21 December 1966.

로 한 제국주의 진영의 위협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분쟁을 통한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대외적 상황의 인식을 손실영역으로의 진입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위협인식에는 한일협정을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도 기여했다. 중국과 소련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연대와의 불안정한 동맹관계 속에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체계의 가동은 김일성에게는 피포위 위협인식이 극대화되는 사건이었다.²²⁾ 당시 로동신문에서도 남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많이 기사화했던 분야가 바로 한일관계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²³⁾ 김일성은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 속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과 확대정책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²⁴⁾

22) 김일성, “일본교도통신사 이와모도 기요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5년 4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333~336쪽.

23) 실제로 1965년 한일협정이 현실화되자 북한은 “항쟁의 불길을 다시 지퍼올려 한일회담을 분쇄하자(1965.03.24)”, “한일회담을 분쇄하고 매국문건을 불사르라(1965.04.03)”, “매국협정들을 짓 부셔 버려라(1965.04.04)” 등의 기사를 통해 한일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선동과 선전에 매진해나갔다.

24) 1966년 4월 9일, 소련 외교부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와 북한 외교부 장관 박성철과의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러한 위협인식을 드러내며 소련의 군사적 제공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Soviet Foreign Minister Andrei Gromyko and North Korea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9 April, 1966, AVPRF, fond 0102, opis 22, papka 107, delo 4, listy 1-5.

(2) 북중 동맹관계의 불안정성과 김일성의 전략적 인내의 한계

북한은 소련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후원국에 의존할 수도 없고, 중국이라는 이념적 형제국에 편승할 수도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중·소 갈등 속에서 전략적 접근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한·미·일이라는 남방으로부터의 위협과 중·소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도 봉착하게 되며, 이러한 대외적 위협인식을 통해 북한을 손실영역내의 위치로 규정하기에 충분했다. 1966년 5월 중국의 문화혁명의 광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²⁵⁾ 마오의 대소 공개논쟁과 당내 정치투쟁의 연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김일성이 중국에 느꼈던 위협은 증폭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문화혁명’에 연계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에게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²⁶⁾ 북한은 점점 더 중국의 공식적 정책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²⁷⁾ 북한주재 외교관들도 북중관계가 이미 분열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²⁸⁾ 북한의 반중국정서가 단순히 북한지도부만의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었다.²⁹⁾ 중국도 북한과의 복잡

25) Chen Jian, *Mao's China & the Cold War*(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p. 233~234; Yang Kuisong, “Changes in Mao Zedong’s Attitude toward the Indochina War, 1949~1973,” *CWIHP Working Paper #34*(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2), pp. 34~35.

26) The DPRK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7 March, 1967, AVPRF f. 0102, op. 23, p. 112, d. 24, pp. 13~23.

27)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29 July 1966. Report on an Information Note from 28 July 1966. PoLA AA, MfAA, C/1088/70.

28) Memorandum of the Soviet Embassy in the DPRK about Embassy Measures Against Chinese Anti-Soviet Propaganda in the DPRK, 30 December 1966, AVPRF, f. 0102, op. p. 109, d. 22, pp. 50~66.

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압력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³⁰⁾ 김일성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³¹⁾ 중국의 반복한 제재들은 1967년 내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³²⁾ 김일성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인내했지만 서서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³³⁾ ‘중국의 사악함(wickedness)’에 대해 깊이 인식했으며³⁴⁾, 중국과 북한의 갈등은 악화되고 있었고,³⁵⁾ 홍위군에 의해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면서 북한내부의

-
- 29)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22 January, 1967, MO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1200/1967.
- 30) 1966년에 식물성 기름과 콩에 대해, 1967년 1월에는 유황과 산업원자재에 대한 북한 배송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1967년 후반기에는 ① 코크스와 가스용 석탄(이전에 연간 250만 톤), ② 오일과 오일생산물(한 달에 2만 톤, 연간 25만 톤)에 대한 대북한 원조를 중단했으며, 추가적으로, 소금, 식물성 오일과 면화에 대한 배송을 금지시켰다.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Comrade Paudisz, on 9 October 1967 between 1000 and 1130 hours in the Polish Embassy, 20 October, 1967, PolA AA, MfAA, C 149/75.
- 31) 1967년 3월 9일,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가 김일성과 쿠바 대사 비고아 사이에서의 대화를 보고한 내용에서도 중국의 반복한 정치선전에 대해 김일성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9 March, 1967, MO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2130/1967.
- 32) Embassy of the GDR in the PRC. 9 March 1967. (Translation of) Wall Poster of “Red Flag” of Beijing’s Aviation Institute from 19 February 1967. PolA AA, MfAA, C 149/75.
- 33) GDR Foreign Ministry Berlin, Far Eastern Department, Korean Division, 19 October 1967.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 DPRK and the PRC. PolA AA, MfAA, C 149/75.
- 34)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16 March 1967. Memorandum on a Conversation with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 PolA AA, MfAA, G-A 364.
- 35) 1967년 10월 20일, 폴란드 대사 푸디즈(Pudisz)가 보고한 문서에는 홍위군과의 충돌에서 사망한 시체가 놓여 있는 화물칸에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 작은

여론을 자극했다.³⁶⁾ 김일성은 그가 인식한 대외적 상황의 손실영역 위치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위험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했던 것이다.³⁷⁾

2) 북한의 국내 정치상황: 대내적 정치상황의 불안정성 전개

(1) 북한 국내정치의 불안정성과 체제의 군사화

1960년대 북한 경제는 1966년에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위기는 베트남 전쟁, 한일 국교 정상화, 중·소 분쟁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산주의의 분열, 북·중관계의 악화 등의 대외적 상황과 연계되어 북한의 국내적 정치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사건은 ‘갑산파 사건’이었다.³⁸⁾ 갑산파는 ‘경제·국방 병진노

수정주의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보고했다.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Comrade Paudisz, on 9 October 1967 between 1000 and 1130 hours in the Polish Embassy, 20 October, 1967, PolA AA, MfAA, C 149/75.

- 36) 1967년 12월 22일, 북한 동독대사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하며, 북한이 ‘소련과 동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State Secretary and First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omrade Hege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22, 1967, Appendix Document No. 2, PolAA, MFAA, G-A 360.
- 37) 최명해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1966년 3월 일본공산당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이 북한에게 ‘남조선 계류자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마오쩌둥의 이러한 역할 분담을 김일성이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236~237쪽.
- 38) 갑산파는 해방 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과 연계하여 갑산 지역을 배경으로 국내에서 지하 활동을 전개하던 갑산공작위원회, 한인민족해방동맹 출신 인물

선’을 반대하였는데, 김일성이 ‘혁명전략’을 강조했다면, 갑산파는 ‘안보전략’을,³⁹⁾ 김일성이 ‘속도’를 강조했다면, 갑산파는 ‘균형’을 강조했다며, 김일성이 이념적 관점에서 군수경제를 강조했다면, 갑산파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민수경제를 강조했다.⁴⁰⁾ 갑산파의 도전은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만주파와 갑산파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내정치적 권력재편의 문제와 대남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⁴¹⁾ 김일성은 이러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대내적인 정치투쟁을 통한 권력공고화와 연계시켰는데, 김일성은 ‘갑산파’ 사건 이후 대외적 긴장고조를 통한 혁명적 열정주의를 고취시키는 발언들을 강조하며, 자신의 비판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계기로 이용했다.⁴²⁾ 북한은 이 사건을 계기

들을 가리킨다. 때문에 갑산파는 흔히 범 빨치산파로 분류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김일성의 만주파와는 구별된다. 박금철과 이효순 등이 갑산파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8월 종파사건’ 이후에 김일성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서울: 들녘, 2001), 428쪽; 이승현, “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현대사 1』(과주: 한올아카데미, 2004), 347쪽.

39) ‘혁명전략’이란 필연적으로 공세적이고 현상타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전략’이란 대내외적인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지닌 가치를 보호하는 능력과 대내외적인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지니는 가치를 보호하는 능력과 관련됨으로 방어적·수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256쪽; 곽승지, “안보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군사전략』(과주: 한올아카데미, 2003), 76~81쪽.

40)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430~431쪽.

41)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남의 조직과 북의 대남사업』(서울: 글출판사, 1993), 229~230, 233~235, 247~248쪽.

42) 김일성,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519~521쪽.

로 권력 내부에 남아있던 제한적인 다양성을 소멸시켰고, 유일체제로 가는 속도를 더욱 높이며, 대외적 정책성향의 위험성과 과감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일성은 자신의 정책노선에 이견을 보이던 당의 사상, 문화담당 간부들을 숙청하며 권력을 공고화하려 했다.⁴³⁾

(2) 남조선혁명전략 수행의 다급함과 병진정책을 통한 경제침체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주력부대인 노동자, 농민 속에서 당력량 강화’를 주장하며, 남한 내의 혁명력량 강화를 중요시했다.⁴⁴⁾ 김일성은 “폭력투쟁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⁴⁵⁾라고,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투쟁도 불사해야 함을 주장했다.⁴⁶⁾ 1960년대 북한 경제는 심각한 자원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⁷⁾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⁴⁸⁾를 통해 북한 경제를 살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이

4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2000), 427~430쪽.

44)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250~252쪽.

45) “우리 남조선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투쟁 즉 폭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로동신문』, 1968년 12월 2일.

46)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between the Czech Ambassador to the DPRK, comrade Moravec, with the Soviet Ambassador, comrade Moskovsky, and the GDR Ambassador, comrade Becker, on 23.1963, 16 May, 1963, file no. 267. 261/01-OZU.

47) 편집국, “인민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을 데 대하여,” 『근로자』, 제14호(1962), 2쪽.

었다.⁴⁹⁾ 북한경제의 구조적 난관아래 국방·경제의 병진은 실패라는 결과를 노정하고 있었지만, 김일성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국의 베트남전 전쟁과 남한의 파병, 한일관계 정상화 등의 부정적인 대외정세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라는 병진정책으로 내몰았으며, 그 자신도 병진노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⁵⁰⁾ 1967~1969년 동안에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국가예산 지출 총액의 31.3%에 이르렀는데, 지난 1961~1969년 동안 약 9년간에 거의 약 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며,⁵¹⁾ 경제침체의 악순환에 들어섰다.

48) 북한은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1961년 12월 김일성의 대안 전기공장 현지지도를 계기로 채택된 관리제도인 대안의 사업체제로 추진되었다. 『로동신문』, 1961년 12월 20일.

49) 대안의 사업체제는 위로부터의 당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자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간관료조직에 의해 당 정책이 하부로부터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관료적 제약을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북한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66년부터는 항일혁명투쟁과 경제관리 방식을 연계하면서 사상사업·정치사업의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우선주의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산리 정신과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에서 북한의 경제는 위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황장엽은 천리마운동,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제가 나오던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를 “북한 사회주의 건설이 황금시대,” “김일성의 활동에서도 최고봉을 이룬 시기”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후 북한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과주: 한울아카데미, 1999), 350~351쪽.

50)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한 보고,” 『로동신문』, 1966년 10월 5일.

51)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219~220쪽;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1998), 114쪽.

3) 위험감수전략으로서의 군사적 모험주의

(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을 살해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양성한 124군부대⁵²⁾ 소속 무장공비 31명을 서울로 침투시켰다. DMZ일대의 철책을 뚫고 30여 명의 무장공비들이 남한의 심장인 서울의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총격전을 벌인 사건은 분명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남한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청와대 기습사건과 연계되어 미국을 타깃으로 의도적으로 시행되었던 군사적 모험주의는 바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었다.⁵³⁾ 북한 전역은 푸에블로호 납치 이후에 비상사태로 돌입했는데, 북한은 동해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공습에 대비해 대공포가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⁵⁴⁾ 1966년부터 1967년 사이에 급격

52) 124군부대는 대남공작 전문부대로 습격작전과 척후정찰을 주임무로 1967년 4월경에 창설되었다. 본부는 황해북도 연산군에 위치하였고, 예하에 총 8개기지(대대급)를 두고 1개 기지가 남한의 1개도를 담당하도록 편성하였다. 1개 기지는 약 300명 규모이며 3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과거 파평산에서 서울 북한산 비봉까지 170리(약 68km)의 거리의 산악기동로를 시간당 10km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하룻밤 사이에 주파하였다.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2』(서울: 광명출판사, 1973), 458, 462~470쪽.

53) 홍석륜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당시 베트남전쟁과 연계된 측면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날 1968년 1월 21일 일요일 새벽, 남북 베트남을 가르는 북위 17도선 군사분계선 서남쪽에 위치한 케산(Khe Sanh)기지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케산기지는 3500여 명의 미해병대와 2100여 명의 남베트남 특수부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1월 21일 새벽, 북베트남 정규군 2개 사단이 케산기지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홍석륜,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파주: 창비, 2012), 52~53쪽.

54) 월간조선 편, 『신판 김정일, 만만치 않은 위험한 실상』, 황민기 옮김(동경: 강담사, 2002), 209쪽.

히 증가한 북한의 무장도발사건을 고려했다라면 혹시 모를 긴급사태에 대응할 사전준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방심했고,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196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평가

지금껏 논의했던 1960년대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적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북한은 베트남전쟁,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체제의 외부적 압박을 통한 피포위 위협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둘째로 문화혁명의 광기가 한반도의 북쪽에 불어 닥치면서,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의 불안정 속에서 형제국의 원조와 지원은 감소하고 있었고, 북한에게는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부각시키며 관계복원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전략이 절실했다. 셋째로 김일성에게는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자주외교노선을 추진하며 중소분쟁의 갈등 속에서 나름의 사회주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이 절실했다. 이러한 대외적 정치상황의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불안정성과 연계되어 김일성으로 하여금 위협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동시켰다. 1960년대의 북한의 국내정치는 1967년 갑산과 사건과 이후 군부강경과가 대두되면서, 북한 내의 권력구조가 변화되어 북한 지도부가 ‘군사적 모험주의’를 결단하기에 보다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통한 군사력 건설과 강화로 더욱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군사화’되어갔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구축하며 ‘수령제’형성의 기초를 다졌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혁명전략사상 고취를 통한 선동정치를 감행했다.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은 김일성의 지배체제 강화라고 하는 내적기재로 활용

<표 2> 1960년대 북한의 위협인식과 위협감수경향

구분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	손실영역	극단적 손실영역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험회파: 타협 / 유화정책	위험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위험회파: 타협 / 유화정책
	불안정적	위험감수 또는 위험회파: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 / 유화정책	매우 위험감수 :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196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① 청와대기습사건 ② 푸에블로호납치사건	초 위험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국방·경제 병진 정책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 내부의 정책추진의 방향성이 더욱 극단적이고 편향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말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통해 서서히 조성되어갔던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통해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가 대외적 정치상황의 악화를 인식하고,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위험감수 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하여 대내적인 정권안보의 위협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보다 더 위험감수경향의 극단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협인식의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19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1) 북한의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에서 손실영역 내로의 전환

(1) 미중 대탕트 분위기와 김일성의 전략적 이해관계

미중관계 개선을 통한 양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화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김일성은 미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외적 지지를 보내며,⁵⁵⁾ 이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중국의 전략에 부응하면서,⁵⁶⁾ 미중관계개선을 북한에게 다가온 새로운 기회로 인식했다.⁵⁷⁾ 중국은 김일성의 대외적 지지에

55) 1971년 8월 6일 시아누크 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미중관계 개선을 ‘중국인민의 승리’라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지지를 전달했다. 김일성,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감보자 국가원수이며 감보자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르돔 사하누크 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25쪽.

56) 박건영 외,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9권 4호(2003), 68쪽.

57) 1971년 4월 12일, 북한 외무성 허담은 ① 주한미군 철수, ② 미군철수 후 남북군대 10만 이하로 감축, ③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일조약 폐기, ④ 자주적·민주적인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⑤ 정치범 석방, ⑥ 과도적 연방제 실시, ⑦ 남북간의 경제교류, 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류, 서신왕래 및 인사교류, ⑧ 남북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남북 조선 정치협상회의’의 소집 등과 같은 8개항을 제안하였다. 이한,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권)』(서울: 온누리, 1989), 361~363쪽; 1971년 7월 30일에는 김일 부수상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회담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덟 가지 북측 주장을 제시했다. ① 남한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② 미국의 대남 핵무기, 미사일, 각종 무기제공 즉각 중지, ③ 미국의 대북 침범 및 각종 정탐 및 정찰 즉시 중지, ④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지 및 한·미 연합군 해체, ⑤ 일본 군국주의 부활 방지에 대한 보장 및 남한에서 미군·기타 외국군대의 일본군으로의 대체불가, ⑥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하 UNCURK라 칭함) 해산, ⑦ 미국의 남·북 직접대화

대북 군사지원으로 환원했다.⁵⁸⁾ 김일성은 분명 미중 데탕트 분위기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중관계를 밀착시키고 원활한 공조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의 위치규정을 이익영역 내로 인식하고 있었다.⁵⁹⁾ 중국에게 기대했던 전략적 기대구도와 안보이익의 입장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⁶⁰⁾ 상대적으로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전체적인 위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와 전략적 공감대 속에 남북한 간의 직접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었고, 가시적인 긴장완화에 매달렸던 것이다.

방해금지 및 조선민민에 의한 조선문제 해결, ⑧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시, 북한대표의 무조건적 참가허용 및 조건부 초청 취소 등을 요구했다.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37쪽.

- 58) 북한은 1971년 8월 17일~9월 7일 오진우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는데, 중국은 군사장비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9월 6일에 오진우와 중국군 총참모장 황용성 간에 ‘무상원조 제공 협정’이 조인되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288쪽.
- 59) 중국은 김일성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면 가시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8월 20일 남북 적십자 대표단의 판문점 회동이 있는 후에, 남북 양측은 무의미한 언쟁으로 석 달의 시간을 보냈는데, 김일성이 방중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11월 20일 남한 측 회담 사무국 회담운영부장 정홍진(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과 북한 측 보도부장 김덕현(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책임지도원) 간에 최초의 별도 단독회담이 성사되는 것은 이러한 김일성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접근을 반증하고 있다. 돈 오버도퍼, 『두 개의 한국』, 이종길 옮김(고양: 길산, 2002), 39~40쪽.
- 60) GDR(German Democratic Republic) Embassy to DPRK Pyongyang, 13 March 1972, PoA AA, MfAA, C 1080/78. Obtain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and translated for NKIDP by Karean Riechert.

(2) 데탕트 분위기 하락과 남북대화의 한계인식: 김일성의 전략적 기대구도 좌절

남북한이 미중관계 개선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회담에 나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상호간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집중하며,⁶¹⁾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름의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했다.⁶²⁾ 남북한 모두가 평화무드로 흔들릴 수 있는 체제내의 정권안보에 주력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데탕트와 남북대화는 남북한의 체제경쟁 및 대립이 더욱 강화되고, 상호간의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변해갔으며, 남북한 간의 정치적·체제적·이념적 괴리를 실감하며 끝나버렸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전개했던 평화공세가 대남혁명 전략의 포기가 아니라, ‘혁명전략’ 내의 행동방침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듯,⁶³⁾ 이 시기부터 대남 비방구호가 급증했으며,⁶⁴⁾

61) 북한은 적십자 회담을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사회단체 회담으로 확대시키려 했고, 남한은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의제를 각각의 단계로 나누어 극히 실무적이면서 기능별로 접근하고자 했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태도를 『로동신문』에서 “이산가족문제와 정치문제를 고의적으로 분리시키려는 것은 인민들의 지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가져오기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62) 김일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년 9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담화,” 『김일성저작집』, 제26권, 303~304쪽.

63) 당시 북한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쳤던 데에는 미중긴장완화라는 국제정세에 부응하면서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박건영 외,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67~68쪽.

64) 최대석·전미영,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 사실과 구호를 중심으로,” 고유환 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서울: 선인, 2006), 617쪽.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1975년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른 데탕트 분위기가 하락할 즈음, 1975년 4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는 ‘남한 내의 혁명전략에 대한 극도의 공격적인 언사’를 남발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러한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중국은 김일성의 기대만큼 부응해 주지 않았다.⁶⁵⁾ 중국은 이미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한 한반도 안보위기 조성을 원하지 않았으며, 김일성은 미중관계 개선을 통해 다가왔던 새로운 기회와 전략적 기대구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⁶⁶⁾

2) 북한의 국내 정치상황

(1)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경고화

1970년대 미중 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김일성의 평화공세의 궁극적 의도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한사회 내부로 침투하고 남북

65) 중국은 “통일은 1972년 김일성이 제시한 ‘평화통일 3원칙’과 1973년의 ‘조국통일 5대방침’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며, “1973년에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Report from the GDR Foreign Ministry,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29 April 1975, PolA, MfAA, 300/78.

66) 최명해는 김일성이 1975년 4월 17일 폴 포트(Pol Pot)가 이끄는 크메르루주군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함락시킨 사실에 고무되었으며, 중국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호전성을 의도적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대북 안보 커미트먼트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인식하는 폴 포트와 김일성의 전략적 가치가 달랐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상이했으므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이미 일정한 기대구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314 ~315쪽.

관계와 체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한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경직되고 견고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체제대립 구도의 견고화는 단순히 이념과 사상이 대립되고, 구성원들의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넘어 김일성에게는 남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선포, 대외적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체계가 정립되었다.⁶⁷⁾ 사회주의 헌법개정과 함께 북한내부의 변화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북한 지배 엘리트층 내부에서 김일성을 비롯해 김일, 임춘추, 최용건, 서철, 오백룡, 오진우, 전창철, 김동규 등 항일 빨치산 출신의 ‘영도간부층’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 2세’ 그룹이 지도간부층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⁶⁸⁾ 당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 총 172명(정위원 117명, 후보위원 55명) 중 134명(77.9%)의 새로운 인물로 대폭 교체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로,⁶⁹⁾ 1970년대 김정일 중심으로 후계체제 수립을 주도하는 배경이 되었다.⁷⁰⁾

67) 김일성은 1972년 10월 23일부터 26일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에서 《헌법》을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우리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강변하며, 남한의 정치상황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0월 23일~26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 467~469쪽.

68)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57쪽.

69)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161쪽.

70) 중국의 제1세대 지도자들은 1910년대나 그 이전에 출생하여 대장정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2세대 지도자들은 1920년대에 출생하여 당원으로서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 제3세대는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교육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세대를 지칭한다. 제4세대는 통상 ‘문화혁명세대’라고 불리며, 1990년대 초반 ‘제3세대’ 지도부에 의해 후계지도부로 양성된 세대를 지칭한다.

(2) 조선로동당의 조직개편과 후계체제 구축

김일성의 이상화 작업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김정일이 주도하게 되면서, 후계자로서의 그의 지위도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었다.⁷¹⁾ 1970년대 들어 김정일의 당내 활동 폭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의 승리,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선언을 통해 1967년 갑산파사건과 1969년 군부강경파사건 등으로 숙청된 인사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김정일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고위 인사들을 교체하였다.⁷²⁾ 이러한 인적교체 및 당조직의 변화는 당 지도부 내에서 김정일이 1973년 9월 이래 비서국을 통해 당과 국가기관, 군대를 장악하는 데 기본적인 초석이 되었다.⁷³⁾ 1972년 김정일이 당 선전선동부장이 된 이후 후계체제 구축 노력은 당 전반과 사회 각 분야로 확장되었는데,⁷⁴⁾ 1974년 2월 12일에 개최된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

김재철,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 새로운 정치 엘리트?,” 이면우 편,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2002), 19~21쪽.

- 71)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당내에서 부상한 것은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였다. 이후 김정일은 자신의 관심분야인 로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으로서 당 사상사업의 핵심인 문화예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04쪽.
- 7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161~162쪽.
- 7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497~501쪽.
- 74) 대표적인 것이 ‘당원증 재교부사업’과 ‘3대 혁명소조운동’이었다. ‘당원증 재교부사업’은 명목상 당증 재심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당 중간간부, 기층간부들을 선별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로동신문은 약 200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밝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조국의 자주적 통일 위업을 이루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1972년 8월 29일.

서 후계자로 공인되었고, 이때부터 언론은 그를 ‘당 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⁷⁵⁾ 김정일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였다.⁷⁶⁾ 김정일은 이처럼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을 통해 먼저 북한의 ‘영도기관’인 당을 장악하였고, 이후 당을 통해 국가 기구와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까지 장악하게 된다.⁷⁷⁾ 김정일은 군장악에 착수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의 핵심간부들을 측근인사들로 교체하여 군에 대한 당통제능력과 권한을 강화하며, 군부대병영, 사무실에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게 했다.⁷⁸⁾

3) 위험감수전략으로서의 군사적 모험주의

(1) NLL도발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했던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1973년 10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

75) 1974년 4월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김일성의 권위를 더욱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작하여 발표하였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33 ~ 137쪽.

76)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서울: 천지미디어, 1997), 117 ~ 118쪽.

77) 황장엽의 표현에 따르면 1974년부터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1999년 9월 14일.

78)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당내 권력이 여러 파벌로 분산되어 있어 당조직과 운영에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었다.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같은 집체적 지도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당이 운영되었고, 전문부서들은 위원회들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에 충실했다. 그러나 당내 파벌이 일소되고 김일성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되면서 중앙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대신 비서국과 전문부서의 당 관료조직이 당중앙위원회를 좌우하는, 당의 실제로 부상했다. 이런 현상을 당이 총비서를 정점으로 초집중화된 관료조직으로 왜곡·발전해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라 칭함을 이슈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 시작한다.⁷⁹⁾ 1973년 10월 23일, 북한의 선박이 NLL 침범을 시작했는데, NLL뿐만 아니라 서북도서의 근접해역으로도 침범하기 시작했다. 1973년의 10월과 12월 사이에는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선박 9척이 6번을 침범하였고, NLL을 43번이나 넘어왔다.⁸⁰⁾ 1974년 2월 15일에 북한은 남한의 저인망 어선(수원호 32, 33호)을 공격했으며,⁸¹⁾ 6개월 후 남한의 해양경찰 초계함 863호를 침몰시켰다.⁸²⁾ 1975년, 1976년도까지 해상에서의 무력시위 기동과 이에 대응하는 전투기의 출격이 있었다.⁸³⁾ 양측 간의 팽팽하던 긴장은 1976년 8월 18일에 두 명의 미군장교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이하 JSA라 칭함) JSA 내에서 북한 경비병이 휘두르는 도끼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⁸⁴⁾

79)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761쪽;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992), 361~363쪽;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과 해양에서의 안보,” 『Strategy 21』, 제1권(1998), 257~270쪽; 김용삼, “한국 해군의 질치부심: 56함 침몰 후 32년 후 북한에 복수하다,” 『월간조선』, 7월호(1999); 이기택, “서해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문제점,” 『월간 군사세계』, 7월호(1999), 27~30쪽; Terence Roehrig, “The Origins of the Northern Limit Line Dispute,” *NKIDP e-Dossier no. 6*(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2).

80) 배재식, 『남북관계대비방안연구: 현 휴전협정체제에서 본 서해 5개 도서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및 대책』(서울: 국토통일원, 1977), 11쪽; 한국정부는 북한의 초계정이 1973년 10월 23일부터 1974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NLL을 219번 이상 침범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일보』, 1974년 2월 16일.

81) 『한국일보』, 1974년 2월 16일.

82) 이문향, 『JSA-판문점, 1953~1994』(서울: 소화, 2001), 103~104쪽.

83) *Korea Herald*, 26 March, 1975, p. 1; 『서울신문』, 1975년 3월 25일.

84)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Richard G. Head, Frisco W. Short and Robert C. McFarlane, *Crisis Resolution: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표 3> 1970년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변화:
평화공세와 타협/유화정책의 배경

구분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	손실영역	극단적 손실영역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협회피: 타협/유화정책 ① 7·4남북공동성명 ② 적극적인 평화공세	위협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① 서해 NLL 도발 ② 판문점도끼만행	위협회피: 타협/유화정책
	불안정적	위협감수 또는 위협회피: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유화정책	매우 위협감수: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초 위협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2) 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평가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의 국제정세 속에서 김일성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부응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남한 내의 반-박정희 세력을 동요 및 결집시켜 박정희 정권의 권력을 잠식하며 정치적으로 압박하리란 기대를 걸었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북한은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북한의 국내적 정치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위협회피 성향을 보이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며, 타협/유화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s(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Wayne A. Kirkbride, *DMZ: A Story of the Panmunjom Axe Murder*, 2nd ed.(Seoul: Hollyn, 1984); 박희도, 『돌아오지않는 다리에 서다』(서울: 샘터, 1988);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 회고록』(서울: 중앙일보사, 1995).

<표 4> 1970년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변화:
군사적 모험주의로의 회귀

구분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	손실영역	극단적 손실영역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험회피 : 타협/유화정책 ① 7·4남북공동성명 ② 적극적인 평화공세	위험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① 서해 NLL 도발 ② 판문점도끼만행	위험회피: 타협/유화정책
	불안정적	위험감수 또는 위험회피: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유화정책	매우 위험감수: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초 위험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미중 데탕트의 분위기가 하락하고 대외정세가 악화되면서 김일성의 기대구도는 좌절되기 시작했다.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태동했던 ‘남북대화’는 처음부터 목적과 동기가 달랐던 남북한 간의 국내정치와 연계되며 태생부터 한계가 노정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전환하고, 외교적 고립이라는 대외적 손실영역을 인식하게 되는 위협인식의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강경하게 대응

했다.⁸⁵⁾ 한미 간의 강경한 군사대응과 압력은 북한을 손실영역에서 다시 극단적 손실영역으로의 위치규정을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초조하게 미국의 군사력 이동에 대해 반응하며 내부적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대응하고 있었다.⁸⁶⁾ 사실 이러한 긴장고조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대미 비난을 통해 조성되고 있었는데,⁸⁷⁾ 이 사건이 전반적인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자행된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북한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중국과 소련은 침묵했다. 중국의 대북 침묵의 배경에는 더 이상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장소가 아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조의 장소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는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미 간의 이해관계 자극을 통해 한미갈등을 유발하려 했지만,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훨씬 대규모의 무력

85) 8월 19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① 20대의 F-111를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② 미드웨이 항공모함, 1대의 구축함 그리고 네 대의 프리깃함을 요코하마에서 한국으로 ③ B-52 폭격기를 괌에서 한국으로 ④ 1800명의 미 3해병사단을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배치했다. 8월 19일에 한미 경계태세는 방어준비태세(DEFCON-III) 3단계, 정보감시태세(WATCHCON-III) 3단계로 격상되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과주: 한울아카데미, 2014), 145쪽.

86) 평양에서는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평양주민 20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노동자들은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며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202~204쪽.

87) 북한은 남한으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도발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쟁의 길로 남한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반도는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 grave situation’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쟁이 언제라도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yongyang Times*, 13 March 1976.

<표 5>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북한의 위험회피경향

구분		대외적 상황		
		이익영역	손실영역	극단적 손실영역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험회피: 타협/유화정책	위험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위험회피: 타협/유화정책 ① 김일성의 공식사과
	불안정적	위험감수 또는 위험회피: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유화정책	매우 위험감수: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초 위험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충돌 혹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며,⁸⁸⁾ 한미공조와 대응은 긴밀했으며, 북한을 극단적 손실영역 내로 밀어넣었다. 김일성은 북한의 정권안보의 위협을 걱정해야 했고, 정권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예상하며,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김일성은 판문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문 발표로 위협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대외적 정치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가져올 정권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인식할 경우, 극단적 손실영역 내에서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이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88) 실제로 남한의 언론이 보복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강경한 군사대응을 요구한 시점도 ‘폴 변연작전’이 수행되고, 김일성의 유감표명이 있는 후 위기 국면이 정점을 통과한 8월 2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반도 체감위기가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홍석률, “1976년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과 한반도 위기,” 292~293쪽.

5. 결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양 극단을 오고가며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반전적 안보상황을 관통했다. ‘군사적 모험주의’의 배경에는 대외적 손실영역 내 위치인식이 주요했고, 북한의 대내적 정치상황에 대한 안정성 및 불안정성 연계가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1970년대 북한의 대내적 정치상황이 1960년대보다는 안정적이었고, 1960년대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1970년대보다 횡수와 강도, 한반도에 미친 안보영향, 북한의 대응과 전략적 상호관계의 연계성을 고려해본다면 보다 위험감수적 경향의 군사적 모험주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의 대외적 상황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규정하게 되었고, 국내적 정치상황의 연계성에 따라 위험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시행했다. 북한과 같은 정권이 감행하는 군사적 도발은 ‘정권의 존폐를 걸고 하는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추구하는 ‘손실회피와 위험감수적 경향’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손실회피와 위험감수 경향은 북한이 손실을 예상하고 있을 때 ‘보다 위험감수적 경향’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속시켜왔다는 점이 이를 지지해준다. 1960년대의 대내적 정치상황의 불안정성이 북한체제 내부의 정권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위기인식은 크지 않았다. 이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가 정권의 사활을 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는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1970년대의

북한의 대내적 정치상황은 사회주의 헌법개정과 수령제를 통한 김일성의 권력독점체제를 강화시켰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통제체제를 강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의 유일지배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국내 정치상황은 1970년대 초반의 대외적 상황과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전개함으로써 위협회피전략인 유화/타협정책을 구사하도록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 인식에 따른 위협감수전략으로 1973년도부터 서해 NLL도발, 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추동시켰다.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의 산물로 감행되었던 북한의 위협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게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북한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행태는 그들이 인식하는 재앙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수준에서, 손실영역에서 이익영역으로의 전환 추구를 위한 제한적이면서 선제적인 행태로 감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진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도 그러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도 극단적 손실영역내로 위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강도를 선택해 왔다는 점이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준다. 대외적 상황과 함께 북한의 국내정치상황의 변화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전략적 선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서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경우, 김정은 체제는 국내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김정은이 국내 정치의 부담과 내부적 충돌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극단적 손실영역 내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좀 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최근의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내부

적 충돌을 차단하고, 국내정치의 부담을 덜어내주면서 북한에게 더 위험감수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대내적 정치상황과의 연계성 속에서 작동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한 위기발생과 적대적 대립 속에서 현상유지가 반복되면서 위기와 갈등이 감소하지만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인식하는 딜레마적 안보현실에서 살고 있다. 70년이 넘는 이러한 무한반복의 불안정성과 체제의 피로도라는 위기가 상승해도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안보불감증을 가중시키고, 남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강화시켜 분단체제가 더욱 견고화되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정권은 대외적 상황인식과 국내적 정치상황의 연계 속에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학습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대응과 노력이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20일 / 채택: 4월 6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82~533쪽.

_____,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캄보자 국가원수이며 캄보자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르돗 사하누크 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217~234쪽.

_____,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519~549쪽.

_____,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46~266쪽.

_____,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년 9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대화,”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72~313쪽.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0월 23일~26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63~479쪽.

2)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로동신문』.

『근로자』.

2. 국내자료

1) 단행본

곽승지, “안보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국가전략』(과주: 한올아카데미, 2003), 76~145쪽.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1999』(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992, 1999).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김재철,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 새로운 정치 엘리트?” 이면우 편,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2002), 19~66쪽.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 회고록』(서울: 중앙일보사, 1995).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서울: 천지미디어, 1997).

박희도,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서울: 샘터, 1998).

배재식, 『남북관계대비방안연구: 현 휴전협정체제에서 본 서해 5개 도서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및 대책』(서울: 국토통일원, 1977).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미치시타 나루시게(Narushige Michshida),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 (과주: 한올아카데미, 2014).

오버도퍼, 돈(Don Oberdorfer), 『두 개의 한국』, 이종길 옮김(고양: 길산, 2000).

이문항, 『JSA-판문점, 1953~1994』(서울: 소화, 2001).

이승현, “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 현대사 1』(과주: 한올아카데미, 2004), 343~368쪽.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_____,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2000).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서울: 들녘, 2001).

이한,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권)』(서울: 온누리, 1989).

유영규,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남의 조직사건과 북의 대남사업』(서울: 글출판

사, 1993).

월간조선 편, 『신관 김정일, 만만치 않은 위험한 실상』, 황민기 옮김(동경: 강담사, 2002)(朝鮮日報 月刊朝鮮 編著. 新版 金正日, したたかで危険な實像).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2』(서울: 광명출판사, 1973).

최대석·전미영,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 사실과 구호를 중심으로,” 고유환 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서울: 선인, 2006), 607~647쪽.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과주: 한울아카데미, 1999).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과주: 창비, 2012).

2) 논문

박건영 외,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9권 4호(2003), 61~91쪽.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과 해양에서의 안보,” 『Strategy 21』, 제1권 (1998), 257~270쪽.

조재욱·이제성·박경우·주성열, “북한의 위구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국방연구』, 제54권 3호(2011), 59~80쪽.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 연구: 양국 동맹의 기원과 역동적 전개과정”(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2006), 79~101쪽.

_____,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 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2007), 7~25쪽.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 북한, 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제113호(2001).

_____, “1970년대 전반 동북아 데탕트와 한국 통일문제: 미, 중간의 한국문제에 대한 비밀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42호(2001).

_____, “위기속의 정전협정: 푸에블로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역사비평』, 여름호(2003), 68~69쪽.

_____,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29~53쪽.

_____, “1976년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과 한반도 위기,”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2005), 271~299쪽.

3) 신문

『한국일보』, 1973년 12월 8일, 1974년 2월 16일, 1990년 11월 3일.

『서울신문』, 1975년 3월 25일, 6월 11일.

『중앙일보』, 1995년 10월 18일, 1996년 10월 6일, 1999년 9월 14일.

4) 기타 자료

김용삼, “한국 해군의 절치부심: 56함 침몰 후 32년 후 북한에 복수하다,” 『월간조선』, 7월호(1999), 659쪽.

이기택, “서해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문제점,” 『월간 군사세계』, 7월호(1999), 27~30쪽.

3. 영문자료

1) 외교문서(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Digital Archive, and FRUS)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65/north-korean-military-adventurism>

Northern Limit Line Disput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12/northern-limit-line-dispute>

The “Second” Korean War, 1967~1969.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19/the-second-korean-war-1967-1969>

USS Pueblo Crisis.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85/uss-pueblo-crisi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
~1972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12,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12/ch6>

2) 단행본

Armbrister, Trevor, *A Matter of Accountability*(New York: Coward-McCann, 1970).

Jian, Chen, *Mao's China & the Cold War*(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McDermott, Rose,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Ostermann, Christian F. and James F. Persn eds,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8~1969*(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3) 논문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1994), pp. 577~
592.

Hwang, Jihwan,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2005).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1979), pp. 276, 285~286.

Levy, Jack S.,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etical Applications
and Analytical Problems,"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1992), pp. 283~

- Michshida, Narushige, "Calculated Adventurism: North Korea's Military- Diplomatic Campaigns, 1966~2000"(Ph. 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2003).
- Park, Ki-Tae, "Analyzing North Korea's Decision-Making Proces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the Rational Choice and Cognitive Models"(Ph. D. Dissertation, The Pardee Rand Graduate School, 2010).
- Taliaferro, Jeffrey W., "Realism, Power Shifts, and Major War," *Security Studies*, Vol. 10, No. 4(2001), pp. 145~178.
-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4(1986), pp. 251~277.
- Yoon, Tae-Young,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towards North Korea within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1968~83"(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s and Philosophy, Th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1997).
- Zagoria, Donald S. and Janet D. Zagori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Blechman, Barry M. and Stephen S. Kaplan, et al. *Diplomacy of Power: Soviet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strument*(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1), pp. 357~411.

4) 기타

- Radchenko, Sergey S.,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47* (2005).
- Yang, Kuisong, "Changes in Mao Zedong's Attitude toward the Indochina War, 1949~1973," *CWIHP Working Paper #34*(2002).
- Person, James F., "The 1967 Purge of the Gapsan Fa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NKIDP e-Dossier no. 15*(2014).

Studies Mechanism of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hoices: Focus on the Military Adventurism Cases in the 1960s~70s

Park, Siyoung(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rough examining the threat perception and choice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In their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North Korean leaders tend to situate themselves in the loss, gain, or extreme-loss domains. In addition, this perception is linked to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which affec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enforce military adventurism or to seek concessions through appeasement policy. This study adopts the 'prospect theory' as a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during the 1960-70s.

First,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loss-domain through its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ends to select military adventurism, a risk-taking strategy, during the time of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Second, when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gain-domain, Pyongyang displays tendency of risk-avoidanc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ism. The Cold-War détente which induced Sino-US opening in the 1970s was perceiv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USFK) and North Korea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ain-domain. However, Kim Il Sung's expectation proved to be wishful thinking when Sino-US relations and internal situation deteriorated. Kim switched to a different strategic method to seek a peace treaty through DPRK-US talks, which in turn relocated North Korea in a loss-domain after experiencing a dead-end in terms of diplomatic offensives. Kim Il Sung further strengthened his dictatorship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Both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induced North Korea to instigate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the "axe murder incident" at Panmunjom.

Third, North Korean leadership displays risk-avoidance attitud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es when positioned in an extreme loss-domain. During the axe murder crisis in 1976, China and the Soviet Union provided nothing but strategical silence in the midst of strong ROK-US military countermeasures. North Korea received no diplomatic or military commitments from the socialist bloc. This was a sharp contradiction from the 1960s. Kim Il Sung was faced with the challenge to prepare for a major armed conflict with the US-ROK joint

forces which might lead to the worse-case scenario of regime collapse. Kim opted to change his risk-taking strategy to risk-avoidance strategy, which led to the unprecedented apology for the axe murder incident to avoid further escalation of conflict.

North Korea implemented military adventurism as a risk-taking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perception related to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it also engaged in risk-avoidance strategy, where it adopted policy of appeasement and concession.

Keywords: North Korea, Kim Il Sung, military adventurism, prospect theory, threat perception, risk-taking strategy